7살 아이의 연 수입이 2,200만 달러

7살 꼬마 유튜버가 지난 1년 사이 무려 2천200만 달러를 벌어들여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주인공은 한창 장난감에 빠져 있을 나이인 미국 소년 라이언(7).

3일 경제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그는 유튜브 장난감 소개 채널 '라이언 토이스리뷰' (Ryan ToysReview)에 새로 나온 장난감 등을 소개하면서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1년 동안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다.

그는 부모의 도움으로 유튜브에서 새 장난감이나 제품 등이 나오면 그걸 뜯어서 조립하거나 시연하는 등 신제품을 선보인다. 라이언이 유튜브에 토이스리뷰를 올린 이후 지금까지의 페이지뷰는 무려 260억 건이나 되며 팔러워도 1천730만 명에 이른다.

▲ 라이언(위 사진 가운데)와 가족들. 아래 사진은 월마트에 납품하는 '라이언스 월드의 장난감들.

라이언 토이스리뷰와 또 다른 가족 운영 채널 '라이언스 패밀리 리뷰' 수입의 대부분은 영상 앞에 붙어 있는 영상광고 '프리롤' (pre-roll)의 대가이다.

라이언은 또 지난해 어린이 엔터테인먼트 전문 기업 '포켓.워치' (Pocket.watch)와 전속계약을 맺고 유튜브 콘텐츠를 재가공해 합법적인 영화·TV 프로그램 등 콘텐츠만 공급하는 동영상 사이트 '훌루' (Hulu)와 미국의 전자상거래 기반 IT 기업 아마존에 공급하기 시작했다. 여기에다 미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에 장난감과 의류 컬렉션을 단독 납품하는 '라이언스 월드' (Ryan's World)를 론칭했다.

라이언은 월마트 통로에 자신의 얼굴이 등장한 것을 보고 "정말 멋지다" (It's so cool)고 환호했다. 월마트 납품 수익은 내년부터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미성년자인 라이언이 번 돈의 15%는 신탁회사 쿠건 계좌로 들어간다.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근거한 쿠건은 라이언 같은 미성년자 스타들이 벌어들인 수입의 15%를 맡아 관리했다가 그들이 성인이 됐을 때 되돌려주는 일을 한다. 나머지는 대부분 유튜브 동영상 촬영비 및 관리비, 그리고 제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된다고 한다.

유골 우주 보내는 '우주장' 첫 선

화장한 유골 재를 소형 캡슐에 담아 인공위성에 실어 로켓으로 쏘아 올리는 '우주장' (宇宙葬)이 미국에서 첫 선을 보였다.

4일 새벽 거행된 우주장에서는 일본인 30명을 포함, 모두 150명의 유골을 담은 소형 캡슐을 적재한 인공위성이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로켓에 실려 발사됐다. '은하철도 999' 등 우주를 무대로 한 작품으로 유명한 만화가 마쓰모토 레이지(80)도 생전장(生前葬)으로 자신의 손톱 일부를 잘라 캡슐에 담는 방식으로 우주장에 참가했다.

이들의 유골 재는 1㎝ 크기의 정육면체 캡슐(사진)에 담긴 상태로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0㎝인 초소형 위성 '엘리시움 스타2' 에 실렸다. 그리고 이 위성은 미국 민간 우주탐사기업 스페이스X의 로켓 '팰컨9' 에 실려 이날 우주로 발사됐다. 위성은 지구 주위를 몇년 동안 돌다가 대기권에 진입하면서 타 없어진다.

우주장은 미국 벤처기업 '엘리지움스페이스' (elysiumspace)가 처음 선보인 사업이다. 이 기업은 앞으로도 희망자가 일정한 수에 도달하면 우주장을 실시할 계획이다. 유골을 수납하는 1㎝ 크기 캡슐 하나의 비용은 약 3,000달러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주장은 민간의 우주이용이 확대되면서 희망자가 늘고 있다. 로켓으로 우주공간에 도달한 후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방식의 우주장은 이미 실시되고 있으며 장차 로켓으로 달 표면까지 보내는 우주장도 추진되고 있다.

"남자가 위험해요!"

지붕에 위태롭게 매달린 남자 때문에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지난 3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텍사스주 오스틴에 사는 알프레드 노우드 주니어 씨(65)는 아침 일찍 아내를 일터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깜짝 놀랐다. 한 남자가 지붕에 위태롭게 매달려는 모습을 목격한 것이다.

노우드 씨는 급하게 차를 세우고 남자에게 달려갔다. 하지만 옆에 있던 사다리에는 장식용 전구 줄이 칭칭 감겨 있어 사용하기 어려웠다. 마음이 조급해진 노우드 씨는 "도와주세요!" 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얼마 뒤 뭔가 오해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붕에 매달려 있던 남자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마네킹이었던 것이다.

뒤늦게 현관 CCTV 영상을 보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집주인 헤를라인 부부도 놀란 건 마찬가지였다.

남편 크리스 씨는 "그 마네킹은 1989년에 개봉한 영화 '크리스마스 대소동' 에서 주인공이 지붕에서 미끄러진 모습을 재현한 것이었다." 며 "가족들끼리 장난삼아 꾸민 크리스마스 장식이 선한 주민을 놀라게 했다는 사실에 웃음이 나오면서도 너무 미안했다." 고 말했다.

결국 부부는 노우드 씨를 직접 집으로 초대해 감사함과 미안함을 담아 상품권을 선물했다.

크리스 씨는 "사건 이후 집 앞에 '마네킹은 크리스마스 장식의 일부이니 신고하지 마세요' 라는 표지판을 세워놨다." 라며 "그래도 우리 곁에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고 전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빅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